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6호 [루게 제24619호] 주체 103(2014)년 7월 25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신의 주시에 높이 모시었다

백두산대국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승리의 명철인 7.27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신의 주시에 높이 모시었다.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것은 선군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이 땅에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평안북도인민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은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있다.

신의 주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24일에 진행되였다.

제막식장은 한세대에 두 계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시고 이 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엄을 만천하에 떨쳐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모여온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인민군군인들로 차고넘치였다.

제막식장에는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판을 드러내 대형기둥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광열에는 조선인민군 료군, 해군, 항공 및 방위군, 로동적위공맹에위령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김일성동지, 박봉주동지, 현철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최태해동지, 양형섭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와 김형진대각부총리, 리만건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최종건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판매부서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장관들,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공헌한 단위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돌격대원들, 도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제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당과 국가, 군대, 평안북도의 책임일군들이 하였다.

제막포들이 빗겨지자 백천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찬연히 빛을 뿌리였다.

환영곡이 울리고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제막식장을 진감하는 속에 수많은 고무공들들이 날아올라 7월의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이러 평안북도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각종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부대, 대학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판이 쓰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안고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제막식을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세기를 주름잡아 달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신의 주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신의 주시에 높이 모신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는 데서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사변으로 된다 고 강조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심을 안고 태양처럼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우리모두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천재적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키시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만민조성을 쌓으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

주체의 화불로 조선혁명의 진로와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총대로 강대한 두 계국주의를 타승하고 조국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였으며 이 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이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연설자는 평안북도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건국의 초행길을 헤쳐가시던 주체34(1945)년 11월 27일 신의주시군중대회에서 도안의 인민들과 뜨겁게 인사를 나누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460여차에 걸쳐 수백개 단위들을 찾오시여 도안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평북땅에 새 조국건설의 동음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회의 나날에도 도안의 각계층 인민들을 찾오시여 전신생활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도록 고무해주시였으며 락원의 10명 당원들과 장산리 녀성들의 고결한 삶이 우리 당력사의 한페이지에 빛나도록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반적인 민경제에서 평안북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증시하시면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는 강력한 공업토대와 농업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 전력공업과 기계공업, 경공업기지가 일떠서게 되였으며 이룩업된 섬이 비단섬으로 전변되고 수천정보의 간척지가 옥담으로 변모되는 화려한 현실이 펼쳐졌다.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과 념원을 끝없는 충정과 헌신으로 받들어

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안북도에 거룩한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을 헤쳐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열어가시던 나날까지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자욱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빛나는 삶을 이어 락원의 8명 당원들이 자라났으며 태천의 기상이 나래치는 속에 발전소들이 건설되고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구성공작기공장, 랑백배아공공장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희한하게 변모되였다.

한드레벨을 비롯한 수만정보의 토지가 번듯하게 정리되고 백마-월산물길과 수백km의 현대적인 도로가 건설되였으며 닭봉장과 태지공장, 경공업공장이 새로 일떠서고 조선은 결실하면 한다는것을 만천하에 과시하며 대개도건설이건실이 완공되는 로동당시대의 기적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국가건설 구상에 따라 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는 자랑찬 승리의 포성이 울리고 튼튼한 농업생산잠재력이 갖추어졌으며 그 어디에나 행복의 무풍도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고있다.

참으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평북 땅에는 거창한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만대기에 길이 전해가려는것은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였다.

이 력사적숙원은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펼쳐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당의 뜻을 받들고 한사랄같이 떨쳐나선

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김일성동지의 높은 발취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어려있는 평북땅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수령님과 장군님을 함께 계시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동상들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돌격대원들을 비롯한 도안의 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충정과 고결한 도덕의리의 빛나는 결실이며 이 땅에 수령과 인민의 영원한 혼연일체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하려는 평안북도인민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연설자는 평안북도 인민들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흥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영상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절절히 옹호수하며 끝없이 빛내일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대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당의 령도를 순결한 랑성과 의리로 충직하게 받들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자

전승절을 맞으며 인민군렬사묘가 훌륭히 꾸려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의 선구자들인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며 혁명을 위하여 공적을 남기고 생을 마친烈士들을 영생의 언덕우에 높이 내세우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떠받들려 평양시 락랑구역 남사리지구에 인민군렬사묘가 새로 훌륭히 꾸려졌다.

경치 좋은 대문산기슭의 1만여㎡의 부지에 특색있게 꾸려진 인민군렬사묘에는 시인의 구역, 군들의 인민군렬사묘에 안치되어있던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의 유해 3 4 2 7 구가

서로 정히 안치되였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 떠나간 영웅전사들의 삶을 끝없이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11월 평양시당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에서 시인의 구역, 군들에 있는 인민군렬사묘들을 한곳에 합쳐 훌륭히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올해의 전승절까지 인민군렬사묘를 훌륭히 꾸리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었다.

시에서는 경치가 좋고 교통조건이 유리한 락랑구역 남사

리의 대문산기슭에 인민군렬사묘를 훌륭히 꾸릴 목표를 세우고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일군들로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에 시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건설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것과 함께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이하여 공사가 일정계획대로 힘있게 진척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건설지휘부에서는 단계별목표를 높이 세우고 전투지휘를 체계있게

해나갔다.

건설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간다는 높은 긍지와 영예를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리었다. 이들은 기본공사과제와 토량물착과 운반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짧은 기간에 1만 6 0 0 0㎡의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보름은 실히 걸린다면 문주와 려사람을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들에 대한 기초공작리트치를 한주일동안에 해제하였다.

건설지휘부에서는 공사속도가 높아지는데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돌가공과 문주

설치를 비롯한 전반적인 건설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시당위원회와 지휘부일군들은 이선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면서 해주시와 통감군을 비롯한 지방의 여러곳을 수시로 오고가며 건설에 필요한 화강석과 건설자재들을 해결해왔다.

시인민위원회산하 원림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돌가공과 돌블임작업을 도맡아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었다. 이들은 한개의 바닥들을 깔고 한m의 옹벽을 쌓아도 희생된 영웅전사들의 삶을 끝없이 빛내여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신 뜻을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와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락랑구역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건설이 시작된 첫날부터 완공의 날까지 건설장에 달려나와 총정의 구슬땀을 다 바치였다. 이들은 려사묘주변정리를 맡아 짧은 기간에 전나무와 은행나무, 수삼나무를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1 7 0 0 그루의 나무를 심고 9천여㎡의 면적에 새 풀종의 잔디를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 락랑구역에 비롯한 시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인민군렬사묘는 불과 넉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꾸려졌다.

글 및 사진 특약기자 최 수 복

고원

전승절을 맞으며 전국 각지에서 인민군렬사묘들을 훌륭히 개건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고원군에서 개건공사가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전승세대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고 그들의 투쟁업적을 빛내어나가는데서 인민군렬사묘개건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한 고원군당위원회 일군들은 고결한 도덕의리심과 불같은 헌신이 안아온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의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교양한 도덕기풍입니다.»

지난 7월초 평양으로 떠나시는 군인원위회일군을 바래우며 군당책임일군을 강조하였다. 자체를 싣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어느 한곳에 경제성취를 위한 한 걸음이라도 걸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였다.

«남새도 무더운데 좀 쉬고 하시오.»

도시경영사업소 노동자들과 나무그늘아래 마추는 군당책임일군을 가지고 간식을 한사람한사람 손에 들려주며 존경사태를 보여준 것이다. 이어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인민군렬사묘개건공사에 얼마나 숭고한 도덕

군당위원회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었다.

건설공법에 의한 화환전정대공사는 빨리 진척되었다. 군당책임일군들의 주도세밀한 작전에 따라 세멘트와 석재, 금속부각장식품 등 자재가 미리 마련된 결과였다.

그들 군당책임일군들은 공사를 맡은 당, 행정일군들과 마주 앉아 계단경계석시공문제를 두고 여러차례 토의를 하였다.

화강석이 없는 조건에서 지방자재를 가지고 특색있게 시공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였는가를 인조석시공을 하면 특색을 살리면서도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군당책임일군의 제의를 모두가 지지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름집군에서 인조석을 실어오기 위한 대책, 미장로력보장대책 등을 면밀하게 세워서 기초하여 계단공사를 내밀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공사장을 찾아 미장용 구간에 살펴본 군당책임일군의 얼굴에 언뜻 그늘이 비껴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수평이 정확히 보장되지 않은 구간들이 있었던 것이다. 자제가 건설하고 계단경계석시공을 하면 특색이 살아있을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새도 무더운데 좀 쉬고 하시오.»

도시경영사업소 노동자들과 나무그늘아래 마추는 군당책임일군을 가지고 간식을 한사람한사람 손에 들려주며 존경사태를 보여준 것이다. 이어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인민군렬사묘개건공사에 얼마나 숭고한 도덕

일군들

의리와 열화같은 사랑이 깃들어 있는지 아가고 하며 둘러보는 그의 이야기는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건설을 몸소 밟기하고 건설장을 찾으면서서는 묘에는 묘주가 있거나 마네펠사묘의 묘주는 바로 우리 당이었다. 인민군렬사묘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결세위원의 숭고한 뜻대로 려사묘를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꾸리자는 군당책임일군의 절절한 호소에 호응하여 로동자들은 한결같이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인민군렬사묘를 개건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어떤 자그마한 티도 없어서는 안된다. 로동자들은 이런 비장한 자각을 안고 이미 완성했던 경제적 뒤떨음을 깨고 인조석시공을 다시 하였다. 정성을 기울여 미장면도 그야말로 고르르게 보장하였다.»

군당책임일군들은 려사묘일군에 두개의 커다란 화대를 특색있게 세우는 문제, 묘주면에 나무와 잔디, 코스모스를 심어 원림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는 문제 등을 대중의 헌신력을 남김없이 발동하면서 힘있게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군당위원회에서 결정해대로 7월 중순까지 인민군렬사묘가 훌륭히 개건되도록 하였다.

인민군렬사묘에는 깃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거울로 삼고 헌신하는 인민군렬사묘의 고결한 충정, 진할 줄 모르는 열정이, **본사기자 김 향 판**



참된 전우, 친근한 동지가 되어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빛내기 위한 당조직의 정교로 따듯이 보살펴주는 감동적인 사실들이 사업에서 전성로병들과 영예군인, 제대군인,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의 사업과 생활을 육친

로병들의 진심의 고백

원산시 해안광장에 전성로병들이 모였을 때였다.

신동생 전성로병들의 앞가슴에 인동은 훈장들과 함께 꽃송이들이 달려있는것이 류달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초급당비서 김영애동무를 비롯한 동일군들과 동우민들의 존경의 마음이 담겨져있는 꽃송이들이었다.

전군결과 전승절을 비롯한

주요계기들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전성로병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과 때없이 안겨주고 건강에 좋은 보약들도 마련해주곤 한 그들, 친지들과 같은 그들의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바래움속에 해인 광장으로 모여온 전성로병들이었다.

유쾌전성로병은 앞가슴의

꽃송이를 쓸어만지면서 말하였다.

«지구상에 전성로병들은 많지도 우리 나라에서처럼 만사람의 떠받들림속에 생을 빛내이는 로병들은 아마 없겠지 않나?»

전성로병들을 존대하고 내세워주는것을 량심과 의리로, 보람으로 여기는 고마운 사람들, 이런 훌륭한 인간들을 키운 어머니 우리 당에 드리는 고마움의 인사였다.

진혈육의 정으로

하였다.

윤기철동무는 8 0 여세대에 달하는 리안의 후방가족들의 생활현황을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웠다.

리당일군들부터가 후방가족세대를 찾아가 도배도 해주며 빨래도 부식물도 마련해주면서 살뜰한 정을 쏟아주었다.

«살피되는 일이 있으면 혼자 속을 쓰지 말고 제때에 이야기해주시시오. 친혈육으로 돌보아 달라고요.»

리당일군들의 진심은 후방가

족들을 더욱 분발시켰었다.

올해에 모내기를 앞당겨 끝내는 데서 후방가족들의 역할이 컸다.

후방가족들의 모범을 본받아 리안의 모든 농장원들이 농사일도 잘하고 자녀교양에도 큰 힘을 쏟고있다.

올해에만도 리적으로 수시령의 청년들이 예전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국보위초소로 달려나갔다. 후방가족들이 늘어나고있다.

한 영 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높이 모신대

당위원회에서는 7. 2 7 과 관련된 선전선동사업을 설계하면서 당조직들이 어머니수령님의 위대성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시기 위하여 두드러 하였다.

이 사업에 헌신하기 당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 4 대 교양을 강화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해나가기 하였다. 특히 신념교양에 모를 바도록 당위원회에서는 신의주시

현실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찾아주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1돐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 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불세출의 선군령장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묘의 정으로 온 강산이 끓어번지는 지금 각자 당 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전승의 령장을 빛내기 위한 당조직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이 사업에서 평안북도당위원회 일군들은 혁신적이며 진취적

신념의 기둥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높이 모신대

당위원회에서는 7. 2 7 과 관련된 선전선동사업을 설계하면서 당조직들이 어머니수령님의 위대성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시기 위하여 두드러 하였다.

이 사업에 헌신하기 당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 4 대 교양을 강화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해나가기 하였다. 특히 신념교양에 모를 바도록 당위원회에서는 신의주시

더욱 억척같이

당위원회, 통천군당위원회, 영주군당위원회, 동림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매일 아침마다 주요장소들에 방충선전차들을 기동성있게 전개하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어머니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술, 고매한 품모에 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가슴뜨겁게 알려주도록 하고있다.

또한 전성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을 의의있게 진행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안고 무비의 희생성과 용감성을 발휘한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기적행적을 대하여 깊이 체득시키도록 하였다.

매교조실점을 추

전승의 역사를 빛내기 위한 사업이 철두철미 실천을 위한것으로 지향하도록 하는것은 도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사적이 뚜렷이 드러났는데도 실정에 맞게 각급 당조직들이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참관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매교조실점을 적극 추종하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락원기적행적지사업소 당위원들이 실효성있게 조직한 참관사

동하는 참관사업

업을 높고하자.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회의 나날 어머니수령님께서 몸소 주철지침당일군들과 함께 지내주시던 인민군렬사묘와 혁명사적지교양실, 연혁소개실에 대한 참관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였다. 참관을 통하여 유망기적장과 제분직장, 주강직장과 신포항주철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어머니수령님께 충정의 맹세를 다지고 드높은 실천력을 발휘한 락원의 1 0 명 당원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그대로

이어나가도록 힘껏 떠밀었다.

장산혁명사적지를 찾은 통천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은 전회의 나날에 발휘된 혁명적락투의 정신을 영생실전에서 드림없이 구현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창골혁명사적지와 유형혁명사적지를 참관한 도안의 일군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선진적 부문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것으로 결심한 수령님의 전성업적을 빛내어갈 열의로 심장을 불태웠다.

속사공혁명사적지, 대유동혁명사적지를 비롯한 도안의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참관사업이 널리 진행되는데에 이르러나서 매교조실점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르르 고있다. 평안북도선전선동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흥건도간석지건설에서 눈부신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수용반조소, 봉화화학공장, 방천전지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통천군 신암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윤전군 윤화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드세게 일고있다.

위대한 전승의 령장을 빛내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의 사업은 더욱 심화되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엔제인가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행된 어느 한 신문에서 «정확한 로력조직으로 적전교향가설에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게 되었다.

«×××속속공병부대 제 3 중대 민정단체는 비밀지는 적란속에서 교향가설작업을 수행하여 보병부대의 강도하락점을 성과있게 보장하였다.» 라고 시작된 기사는 어느 한 공병중대 작전취지에 파피된 다리를 가설하기 위하여 벌린 전투내용을 자세히 담고있었다.

전승시기 이야기라면 원수들이 수많은 무적의 육박전영웅이나 용감한 당조병들의 전투담, 아슬아슬한 정찰병들의 위훈담이 두 주먹을 찌는 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이 덜 떨어지는 공병전투원들이 가설작업의 전장에서 어떻게 싸웠을가 하는 호기심으로 이 기사의 주인공이며 제날 용감한 조신인민공병이었던 정문산 전성로병을 만나보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군용사들과 민정원들이 발휘한 열렬한 애국주의는 참다운 애국주의입니다.»

올해 8 1살의 고령에 이른 정문산로병은 주제 4 0 (1 9 5 1)년에 조선인민군 제 8 보병사단직속 공병부대 제 3 중대 민정원장으로 름집전투원으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때는 제가 교향의 부모님들과 형제들을 비롯한 2 0 여명의 일가식속이 원수님들의 손에

무참히 학살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직후였습니다.»

전선으로 날아드는 후방의 소식, 그것은 생사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전장의 변화에서 병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공병하고 감미로운 생활의 혈액을 공급하는 수혈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매병사 총포탄이 울부짖고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전선의 한구간에만 서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을 밟고 돌아오는 순간에 대한 기대는 너인들의 가슴속...

삶과 죽음이 마주치고 엇갈리는 전쟁인것만큼 기본 소식만 있을수는 없다. 정문산로병과 같이 하루아침에 일가식속을 잃는 가슴에서는 소식을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비보들이 전선의 우리 병사들을 그 어떤 동요나 좌절에 빠뜨린적은 없었다. 오히려 적에 대한 중요성을 배배해주고 승수적결의 의지만을 무겁게 증폭시켜주었다.

가슴에서 고향전지 병사의 심장을 북두성으로 불타게 하려 바로 그때 정문산이 속한 중대는 새로운 전투임무를 받았다. 보병부대가 름집전투를 도하할수 있도록 빠른 시간안에 파피된 철다리를 가설하라는것이였다. 임무를 받은 3 중대 전투원들은 당세포의 지도밑에 긴급민정총

회를 열었다.

당시 중대의 대대수원인이 민정원들이었다. 회의에서는 민정원장 정문산의 교향에서 온 편지가 랑독되었다. 마디마디 복수를 초소하는 한 편지의 구절구절을 새겨들은 전투원들의 가슴속에는 피가 끓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억울하게 죽은 민정원장정문산의 가족을 비롯한 이 나라 인민의 이름으로 이번 전투임무를 무조건 수행할것을 결의하였다.

회의가 끝나자 중대에서는 민정원장정문산을 팔간으로 다려가 설과 사다리보장, 쇠바줄제작 등을 위한 전투조직을 하였다.

전투원들은 폭탄과 로탄에 넘어진 전우들과 전기줄들을 가지우 사다리와 쇠바줄을 만들었다.

아군의 진격을 저지시켜버리고 름집전투의 다리들을 다 파피 한 적들은 강건너편에 각종 포와 중경기관총 등으로 강력한 화력진격을 펼칠하는 한편 수천명의 병력을 집중배치해놓고 «철벽의 요새» 라고 떠벌어대고있었다. 원수님들은 인민군대가 가슴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 파피된 철다리와 파피된 길목들을 쏘우역으로 정하고 실재없이 포탄을 쏘아대고있었다.

전투원들은 주저없이 전투에 나섰다. 그들은 어둠이 깃들자 사다리를 비롯한 가설물들을 매고 1 분간격으로 달려나가는 열

인 일본새를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영원히 고수하며 혁명실천을 통하여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당위원회일군들이 작정하고 추진하고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두가지로 주목되고있다.

신념의 기둥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높이 모신대

당위원회에서는 7. 2 7 과 관련된 선전선동사업을 설계하면서 당조직들이 어머니수령님의 위대성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시기 위하여 두드러 하였다.

이 사업에 헌신하기 당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 4 대 교양을 강화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해나가기 하였다. 특히 신념교양에 모를 바도록 당위원회에서는 신의주시

공병의 위훈

는 법이다. 죽음이 없는 전쟁이 없는것처럼 희생이 없는 전투도 없다. 위대한 조국을 위한 헌신, 승리를 위한 희생은 값비싼 영토로 알고있는 인민군사들이었다.

그들은 한순간에 무대에 선

고 가설한 다리위로 수천수만의 전우들이 비호같이 달려나갈것이다. 자기앞에 깔린 전투임무가 어둠이 수렁하는것으로 싸우고 혈육들앞에 지닌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정문산에게는 한초한초가 더

던것만 같았다.

가설전투가 분분초초를 다루고있던 때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었다. 적들이 무슨 기미를 썼는지 조정방향을 좌우하고 물사격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전투장은 대낮처럼 밝아지고 적들이 아슬아슬 소리를 내며 날아들기 시작했다. 류산관들이 사방에서 터져 파피된 미끼 사다리들과 비발치듯 날아오는 총알들이 귀전을 스쳤다.

한명 또 한명, 귀중한 전투원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수면위로 서서히 퍼지는 전우의 선혈을 느끼면서서도 가설전투를 중단할수 없는 병사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승리는 언제나 비싼 값을 치

치고 화점들을 단숨에 빼앗았으며 날이 밝자마자 대안에 도사리고있던 원수님들에게 드센 공격을 들이대었다.

적들은 갑자기 뒤쪽에서 불벼락을 얻어맞게 되자 갈갈갈 하면서 퇴각하기 시작했다. 급히 날아든 수시대의 적비행기들은 강대안에서 파주쪽으로 퇴각하는 자기편을 공격하는 인민군대로 잘못 알고 기총탄을 마구 퍼부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공병들의 가슴은 통쾌함으로 터질것만 같았다. 정문산의 얼굴에도 자랑한 승리자의 미소가 피어있었다.

전장에서 공병이 적과 직접 맞붙어 싸우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위험한 전투환경에 제일먼저 뛰어들며 생사가 판가름되는 격렬한 싸움마당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빠져나온다. 전투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열쇠와 자물쇠에 비유되곤 한다. 공병들이 열어놓는 열쇠를 따라 신속히 적진속에 뛰여든 병사들은 원수님들을 무자

비하게 쓸어놓는다. 공병들이 매설한 차단물들은 많은 원수들을 살상시키도 하며 적들의 공격기도를 저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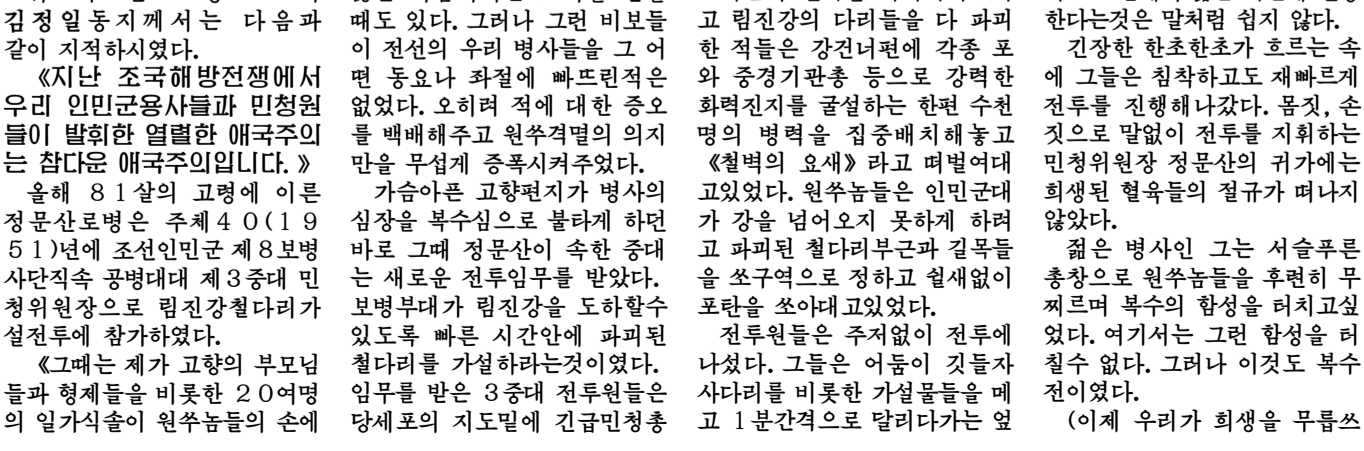
사실상 적들을 총대로 무찌르고 적당으로 깨부서서 적기를 쇠뿔기는 전과와 쉬이 대비할수 없는것이 공병들의 위훈이다. 그래서 공병은 가장 용감한 사람이며 총창없이도 원수들을 제대로 잘못 알고 기총탄을 마구 퍼부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공병들의 가슴은 통쾌함으로 터질것만 같았다. 정문산의 얼굴에도 자랑한 승리자의 미소가 피어있었다.

전장에서 공병이 적과 직접 맞붙어 싸우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위험한 전투환경에 제일먼저 뛰어들며 생사가 판가름되는 격렬한 싸움마당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빠져나온다. 전투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열쇠와 자물쇠에 비유되곤 한다. 공병들이 열어놓는 열쇠를 따라 신속히 적진속에 뛰여든 병사들은 원수님들을 무자

비하게 쓸어놓는다. 공병들이 매설한 차단물들은 많은 원수들을 살상시키도 하며 적들의 공격기도를 저지시킨다.

사실상 적들을 총대로 무찌르고 적당으로 깨부서서 적기를 쇠뿔기는 전과와 쉬이 대비할수 없는것이 공병들의 위훈이다. 그래서 공병은 가장 용감한 사람이며 총창없이도 원수들을 제대로 잘못 알고 기총탄을 마구 퍼부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공병들의 가슴은 통쾌함으로 터질것만 같았다. 정문산의 얼굴에도 자랑한 승리자의 미소가 피어있었다.

전장에서 공병이 적과 직접 맞붙어 싸우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위험한 전투환경에 제일먼저 뛰어들며 생사가 판가름되는 격렬한 싸움마당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빠져나온다. 전투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열쇠와 자물쇠에 비유되곤 한다. 공병들이 열어놓는 열쇠를 따라 신속히 적진속에 뛰여든 병사들은 원수님들을 무자



생사를 판가리하는 가장 위험한 곳들의 앞장에는 언제나 공병전투원들이 있었다.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킨 용사들처럼 조국의 새 물길을 기어이 열자

황해남도 물길공사장에서

완공의 날을 앞당기며 질풍같이 달린다

자 강 도 러 단 에 서

불같은 날과 달이 흥했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제기일에 끝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자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상반년기간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1만 5천여㎡의 물길굴착공사와 3천여㎡의 풍크리트리복공사를 진행하여 총공사량의 75%계선을 돌파하였다.

그리하여 려단이 맡은 1단계 대상공사를 올해중으로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위 대 한 령 도 자 강 집 정 동 지 계 서 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해내고야말겠다는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달려들어야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 7월초 려단에서는 총화모임이 열려졌다. 상반년사회주의경쟁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닌 자강이 어려웠던 일군들의 얼굴을 미담게 보며 정치부장 최길준동무는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이제 해야 할 공사과제는

방대하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승을 안아온 1950년대 육탄용사들처럼 살며 투쟁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반년도에 모든 역량을 물길굴착과 풍크리트리복공사에 총집중하여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 결의를 다지는 참가자들의 앞에는 지나온 날들이 감회깊이 돌이켜졌다.

지난 6월 중순 어느날 밤 회담시대에 맡은 물길공사에서는 분락구간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순간에 흠사태가 쏟아질지 모르는 속에서 동발목을 하나하나 해체하는 돌격대원들의 긴장된 얼굴마다에서는 땀방울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대대장 김희범, 정치지도원 령기영, 돌격대원 김중순, 김영복, 리춘혁 동무들 비롯한 12명의 당원들이었다. 물길굴 160여m길이에 남겨놓았던 6m의 분락구간을 극복할것을 스스로 결의해나신 그들이었다. 이 구간은 분락이 너무 심하여 동발목을 버티어놓고 남겨놓았던 자리였다. 전투를 앞두고 열린 당원회의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동무들, 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전 화의 용사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

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쳤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맡아 해제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조직된 당원결사대였다. 긴장한 전투속에 마치 막동발목을 해체하고 잠시 숨을 돌리는 순간에 흠사태가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또다시 전투를 벌였다. 밀착도 성하지 않아 흠사태를 메고 달리고 또 달려서 흠을 치러하느라던 또다시 쏟아져내리는 흠사태, 이렇게 하기를 십여일, 당원들모두가 지쳤지만 누구 하나 주저하지 않았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물길굴을 완성할 불타는 일념으로 더욱 분발해나신 결사대원들은 분과 초를 짚고가며 전투를 벌였다.

42시간동안의 격전, 식사시간마저 이과워 주먹밥으로 끼니를 에우며 이들은 1950년대의 육탄용사들이 발휘하였던 투쟁정신으로 이 구간을 끝낼때 극복하고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

그들의 일을 돌이켜보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전화의 영웅들이 발휘한 육탄정신으로 투쟁할 때 못해낸 일이 없다는 사생

결단의 정신으로 분발해나셨다. 려단이 맡은 대상건설장들마다에서 려일 혁신이 창조되었다.

중강군대에서 60여m구간의 보강풍크리트리복공사를 진행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대대에는 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은 탄약이 떨어지면 바위들을 굴러고 육탄이 되어서라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대로 한치의 땅도 적들에게 내주지 않았다. 우리가 그들처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투쟁한다면 못해낸 일이 없다.

이런 필사의 신념을 안고 펼쳐나신 일군들은 제기되는 자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밤이 깊도록 뛰었으며 돌격대원들도 신약 같이 펼쳐나갔다.

화산식정지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공사장에서는 려일 위훈이 소문나게 되었다.

그러하여 이들은 부족되는 수 십kg의 철근결박선과 100여kg의 연유를 자체로 해결하여 한달이상 걸려야 하던 공사를 단 15일동안에 해제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들뿐만이 아니었다. 강계

시, 전천군, 자성군대대를 비롯하여 려단의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펼쳐나 맡은 대상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돌격대원들의 투쟁소식은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감동시켰다. 도, 시, 군의 일군들은 자주 공사장에 나와 1단계 공사를 올해중에 끝내기 위한 협의회를 진행하고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공사형편과 애로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해결해주었다. 얼마전에도 도, 시, 군의 일군들이 착암기, 용접기, 양수기를 비롯한 10여종에 120여점의 각종 설비들과 공구, 수많은 후방물자들과 생활필수품들을 가지고 공사장으로 달려와 돌격대원들이 전화의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하도록 그들의 열의를 힘있게 불려주었다.

결과 려단은 공사장적으로 제일 단합된 집단으로, 우승을 양보하지 않는 전투력있는 단위로 소문나게 되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런 신념의 맹세를 안고 공격전의 분초를 이어가고있다.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킨 용사들처럼 살며 투쟁하여 완공의 날을 앞당기고 영예로운 승리가 되리라.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처럼!

△ 황해남도물길공사장에 1950년대의 투쟁정신, 공격전의 기상이 새차게 나래치고있다.

총연장길이 수백리에 달하는 대자연흐름식 물길공사의 규모는 방대하다. 뚫어야 할 물길굴 길이는 백여리나 되며 1천 2백여만㎡의 토량을 처리하여 2개의 저수지와 600여개소에 잠판, 물다리 등을 건설해야 한다.

조건도 매우 어렵다.

하지만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195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가슴 불태우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가고있다.

《탄약이 떨어지면 바위를 굴러고 육탄전을 벌리면서라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기어이 관철하고야만 전화의 영웅들처럼 살며 싸울 때 못해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한몸 그대로 착암기가 되고 한층의 세멘트가 되어서라도 물길공사를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기어이 완공하고야말겠습니다.》

이느 려단, 어느 대대, 그 어느 돌격대원에게서나 이런 열정넘친 목소리, 신념의 메아리가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전승을 안아온 조국수호자처럼 살며 싸울 불타는 맹세안고 조선속도창조열풍을 새차게 일으켜가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떠날때를 공사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있다.

△ 황해남도물길공사장은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사회주의호전의 치열한 격전장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제기일에 완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문제나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정치적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황해남도농사에 필요

한 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몸소 맡기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다 밝혀주시었다.

공사가 완공되면 강령, 용진, 청단군 등 여러 지역의 수만정보의 논과 밭에 관개용수를 자연 흐름식으로 대주어 해마다 수만의 알곡을 증수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해주시의 먹는물과 공업용수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고 재령강하류 지역의 큰물피해를 미리막을수 있게 되며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게 된다.

레년에 보기 드문 가을현상이 지속된 올해의 이상기후는 황해남도물길공사의 절박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처럼 당이 맡겨준 격전장에서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황해남도물길공사를 기어이 앞당겨 완공하여야 한다.

조선속도창조열풍을 새차게 일으켜 당면한 1단계공사를 올해중으로 무조건 끝내야 한다.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고 전투조직과 작전을 더욱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공사속도를 최대로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찾아내고 혁신적방법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언제나 앞장서서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한다.

돌격대원들은 팔다리가 부서지면 턱으로 중기의 압력을 누르면서 조국의 고지를 끝까지 사수한 전화의 영웅들처럼 당이 맡겨준 임무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할 사생결단의 각오로 격전의 1분 1초를 이어가야 한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려단위원회에서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1일의 세멘트, 1개의 정알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여 공사장에 속히 보내주어야 한다.

지금 자강도려단, 평안남도려단을 비롯하여 공사장적으로 제일 앞서달리고있는 려단, 대대들을 보면 려일성이 해당 도, 시, 군일군들의 관심과 인민들의 지원열의가 남달리 높은 단위들이다. 각 도, 시, 군, 구역의 일군들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싸우는 고지에 인호물자를 보내는 심정으로 황해남도물길공사를 적극 도와나서서

모두다 전승을 안아온 조국수호자처럼 살며 투쟁하여 새 물길을 하루빨리 열자.



개성시 대대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앞장에서 더욱 용기백배하여 투쟁해나감으로써 오늘날의 승리가 래일의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황해북도려단 상원군대대가 맡은 물길공사장이다.

지금 여기서는 맑은 물길공사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완공하기 위한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다.

밤급 한발발을 해제기 기쁨안고 착암공 운철룡, 최룡국동무들이 또다시 착암기를 틀어던져 압박에 마주선다.

압박상태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천공위치를 다시금 확인한 그들이 아무런 착암기소리를 울려가기 시작했다.

기관총의 편발사격마냥 일제히 울리는 착암기들의 동음이며 막장안에 울려드는 압축공기소

리, 용을 쓰며 기운차게 돌아가는 정대명으로 부슬부슬 흘러내리는 물가루, 버럭을 가득 진고 뒤임없이 오가는 밀차들...

마치도 초포성 울부짖는 전화의 격전장을 방불케 한다. 착암기를 세워야 할 뜻밖의 상황이 조성되자 모두의 얼굴에 긴장이 여린다.

《동무들, 우리가 이쯤 한

도 순결한 망심과 헌신의 분과 초, 조국과 인민앞에 몇몇순간순간을 이어가는 미더운 그들의 투쟁은 불타는 고지를 목숨바쳐 지켜가던 전화의 영웅전사들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힘찬 함마정에 불꽃이 튀긴다. 굳은 암반도 이들의 앞길을 막지 못한다.

물길기계화사업소대대에서

지난 4월 어느날이었다. 물길기계화사업소대대대장 방대석동무는 길옆에 서있는 자동차를 띄어보고 그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가보니 운전사가 한창 수리중에 있었다. 그와 함께 고장을 피치고 시계를 들여다보니 1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순간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시간은 자동차가 4-5량은 얼마든지 걸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루에 몇대의 자동차를 이렇게 도중에서 수리한다면, 더우기 매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시간은 정말 대단한것이었다.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였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을 없애고 자동차들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었는가. 그 대답을 찾기 위해 그는 운전사들과 기능공, 수리공들을 만나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수리전투를 벌이면 튜닝기계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결심을 정치일군인 송철학동무가 적극 지지해나갔다.

이렇게 되어 조직된 이동수리가 한몫 단단히 하였다. 현장에서 수리전투가 진행되기에 운전자, 운전공들이 부속품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대로 오가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수리시간을 단축하여 더 많은 토량을 나룰수 있었고 이동수리성원들이 튜닝기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고 미리 대책을 세울수 있었다.

성과가 오를수록 일군들은 더 많은 부속품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도 전투적으로 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펼쳐나신 일군들은 발전기, 착암을 비롯한 여러가지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여 튜닝기계가 만가동할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리기계를 비롯하여 꾸러닝고 여러가지 부속품을 재생리 용하였다. 정일연동무를 비롯한 이동수리공들은 더 많은 부속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힘찬 전투를 벌였다.

결과는 좋았다. 수송실적이 더욱 높아지는것만큼 저수지에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함경남도려단 신포시대대에서

격전의 1분 1초

△ 황해북도려단 상원군대대에서

난관에 주저앉으면 그만뿐 완공의 날이 늦어지게 됩니다. 굴진 속도도 순간도 늦출수 없습니다.》

대대장 림국진동무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김철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먼저 함마를 휘두른다. 뒤따라 돌격대원들이 함마질을 힘차게 해낸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드는것도 이렇듯없이 려단 정대를 조경대는 돌격대원들이다.

그들에게 뒤질세라 버럭운반을 맡은 돌격대원들도 육중한 밀차를 밀며 뛰고 또 댄다. 보이는 길은 막장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발과 손이 구멍이 울린다. 발과 공들이 익숙된 손으로 발과구멍마다에 폭악을 채우기 시작한다. 잠간사이엔 발과구멍이 끝나자 《발파!》 하는 구령이 울려 퍼진다.

《중-쿠중-쿠중-》 발과소리가 메아리쳐간다. 물길공사장의 1분 1초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조국의 한치 땅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전화의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해가는 우리의 미더운 돌격대원들의 심장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전해주며 발과소리가 려이어 울린다. 전승의 축포성처럼.

대오의 앞장에 선 미더운 전투원들

- 승리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함경남도려단 신포시대대정치지도원 백명남동무는 누구나 따르는 정치일군이다. 그는 언제나 화산식정지사업을 앞세워 돌격대원들이 오늘의 보람을 누리게 하였다.
- 평안남도려단 성천군대대대장 고휘동무는 려단은 물론 물길공사장적으로도 소문이 자자한 지휘관이다. 강한 조직력과 간전 일본새로 모든 일을 빈틈없이 전개해나갈뿐아니라 남다른 착암기를 틀어잡곤 하는 그의 헌신적인 투쟁기풍은 대대의 전투
- 최연철동무는 책임성이 높은 운전사이자, 공
- 사실적을 높이는데서 자신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그는 자질자성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여 설비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있다.
-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양영찬 동무, 고휘 동무, 백명남 동무, 김윤혁 동무, 최연철 동무



평안남도려단 성천군대대에서

저수지 인제 공사장에서

